

# “영업·기술조직 변함없이 유지”

2020년 지역경제인에게 듣는다

KT전남·전북광역본부 서창석 본부장

“고객 중심의 조직개편 취지에 따라 현장 경영을 강화하고, 지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창석 KT전남·전북광역본부장(전무·53)은 최근 취임사에서 “임직원과 함께 고객 최우선 경영의 영업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전남·전북광역본부는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에 영업 및 기술조직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전문인원을 배치해 고객 니즈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지역민에게 KT의 강점인 고품질의 통신 인프라와 혁신기술을 적용한 5세대(G) 무선·기가 인터넷·TV·유선전화 등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세대 신성장동력인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5G 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고품질 5G 네트워크 기반의 차별화된 플랫폼을 고객과 시장 관점에서 융합하고 재창조해 고객가치를 높이고 사업 영역을 확장할 방침이다.



따라서, AI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인 시즌(seezn)·기가지니 테이블(Table) TV·슈퍼(Super) 가상현실(VR) 등 개인 실감미디어 서비스와 홈 사물인터넷(IoT)·기가아이즈(GiGAeyes)·보안 상품 등 고객 편의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에너지·헬스케어·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미래융합서비스를 제공해 사회·경제 가치를 창출해 지역민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서 본부장은 성공관대 전자공학 학·석사 출신으로 ▲KT무선네트워크본부 무선품질담당 ▲2012년 KT수도권 네트워크운용단 강북무선운용센터장 ▲KT네트워크기술본부장 ▲KT네트워크전략본부장 등 풍부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KT의 5G 상용서비스를 위한 5G 네트워크 전략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본부장은 “KT전남·전북광역본부 개편은 더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전남과 전북, 제주지역 고객 모두에게 보다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면서 “각 지역본부 산하의 영업 및 기술 조직과 인원 축소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노사간 배려와 화합하는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으로 생동감이 넘치는 직장을 만들고 지역과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면서 “사회적 배려 계층을 지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광민 기자



## 학동센트럴시티 주택홍보관 31일 오픈 지역주택조합 사업 방식 추진...총 920세대 예정

광주 동구 학동 센트럴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상용건설을 시공예정자로 선정해 동구 학동 676-35번지 일원에 (가칭)학동센트럴시티지역주택조합 주택홍보관을 오는 31일 오픈한다고 27일 밝혔다.

학동센트럴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35층으로 지어지고, 총 920세대가 들어선다. 전 세대가 남향·동남향의 혁신설계로 구성됐다.

광주 동구 학동 750-1번지 일원에 들어설 학동센트럴시티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도시정비사업법 재건축사업 대신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건립 예정인 920세대(84㎡A, B, C, 121㎡ 4개 타입) 전 세대가 남향, 동남향 4베이 최신 혁신설계로 구성 됐다”며 “초우량 1군 건설사의 책임시공으로 동구권 최고 입지라는 명성에 걸맞은 명품아파트 단지로 재탄생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동센트럴시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최첨단 주거시스템이 부각돼 수요자들 사이에서 호평이다. 음성명령으로 집안 가 전기구와 다양한 정보를 홈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지역 내에서 우수한 입지를 선점해 다양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무등산 자락의 시원한 조망이 펼쳐지는 그린라이프와, 광주남초교·윤립중·조대부중교·조선대 등 안정된 교육 여건이 조성됐다.

또, 아파트 단지 앞 중심사 입구역과 주변 2순환도로로 KTX역과 공항까지는 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조대병원·전대병원·학동주민센터·남광주시청 등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춰져 있다.

이밖에도 커뮤니티 시설로 피트니스·GX·SUNKEN·골프연습장 및 사위시설이 계획돼 있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도 제공될 예정이다. /고광민 기자



농협전남지역본부부는 최근 고흥만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소독을 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 전남농협, 가축전염병 차단 특별방역

농협전남지역본부부는 최근 고흥만 철새도래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소독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은 귀성객과 해외 여행객 등 사람과 차량의 대규모 이동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

이다. 가축전염병 발생·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주요 축산시설 일제 소독과 대국민 방역 홍보가 필요하다고 농협은 설명했다.

따라서, 지역본부부는 공동방제단과 방역차량 120여대를 동원해 축산농장과 밀집사육지역,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일

제 소독을 했다. 지역본부부는 지난 17일에도 AI 방역을 위해 생석회 1,500포대를 긴급 지원했다.

김석기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국내 여행객들은 축산농장과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주고, 해외 여행객은 햄·소세지를 비롯한 축산물 국내 반입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광민 기자

## 오늘 축산시설 일제 소독

나흘간의 설 연휴가 끝난 28일 전국 축산농가와 시설에 대해 청소와 소독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청소와 소독을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시설이 청소와 소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나서고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철새도래지와 밀집 사육 지역 등 방역 취약 대상 3,400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농협, 군부대 등이 역할을 분담해 소독에 나선다.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전 홍보에 이어 당일 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한다.

전통시장 금품 판매소와 거래상인 계류장 등에 대해서는 29일을 ‘일제 휴업 및 소독의 날’로 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광민 기자

## 항공사, ‘우한 폐렴’ 중국행 취소 수수료 면제

‘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불안이 커지면서 중국 여행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 노선을 예매한 승객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중국 모든 노선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음달 29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이 해당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인천~우한 노선의 환불 위약금을 면제하고 여정 변경시 재발행 수수료를 1회 면제해줬으나 ‘우한 폐렴’ 확산으로 승객의 불안이 커지자 환불 수수료 면제 구간과 대상 기간을 전면 확

대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이 포함된 여정(지난 24일~3월31일 출발 기준)에 대해 환불 또는 여정 변경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중국 출발·도착이 포함된 이원구간 확약 고객, 한국~중국 노선 이외 타 노선 확약 고객 중 타 항공사의 중국~한국 노선 항공권 소지 고객 등도 해당된다.

저비용항공사(LCC)도 동참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경우 이달과 다음달 출발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함께해요 청년창업!  
청년의 열정을  
북구가 응원합니다.

청년도약! 예비창업가에서 성공강소기업으로  
청년창업 종합 지원 시스템

청년창업이 뿌리내릴 토양마련



청년창업이 움트도록 영양공급



청년창업이 열매 맺을 생태계 조성



광주광역시북구 | 일자리정책과 T. 410-6578  
GWANGJU CITY BUK-GU

